

미주한인교회 만족도 '목회자 설교·예배'가 좌우

미주한인교회 목회자 영적·도덕적 자질 중요성 높아져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교회 만족도에 목회자의 설교와 예배 분위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들은 출석하는 교회에 만족하는 이유로 '목사님 설교가 좋다'가 63.5%, '예배가 은혜롭다'가 49.7%로 나타났다. 이어 '교인간에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있다'가 23.2%로 뒤를 이었다.

교회에 만족하는 상위 2가지 요소가 예배와 관련이 있어서, 한인교회 대다수의 한인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와 예배'를 통해 교회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CTS America는 지난 9월 지앤컴 리서치(지용근 대표)에 의뢰해 미국 한인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의식과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해 미주 한인교회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목회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펼쳤다.

조사 대상은 미국 뉴욕과 뉴저지, LA, 아틀란타 지역 77개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만



기독교TV방송 CTS America는 지난 8일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2023 목회 인사이드"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한인교회 성도들의 의식 변화, 최신 목회 트렌드와 사례 등을 제공했다. ©기독일보

19세 이상 개신교인 1천58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14일간이었다.

마찬가지로 출석교회 불만족 이유를 물었을 때는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에 은혜가 안 된다'는 의견이 5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 리더들의 언행 불일치'가 34%로 뒤를 이었다. 또 '교인간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가 28.3%, '교회 분위기가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한다'가 26.4%로 나타났다.

미주 한인인교회 목회자가 가져야 할 역량으로는 '목회자의 영적 자질'이 76.6%로 가장 높았고, '은혜로운 설교'가 41.7%로 뒤를 이었다. 또 '목회자의 도덕적 자질'이 35.5%, '이민 사회에 대한 이해'도 22.6%로 나타났다.

현장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 약화 온라인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지난 1달 동안 출석교회 이외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61.9%가 있다고 밝혀 설교에 대한 목마름을 대변했으며, 현재 느끼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는 87.3%가 갈급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 본인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가장 도움을 받은 것으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63.1%, '성경 묵상과 기도'가 44.7%,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17.5%로 나타나 출석 교회 목회자의 설교에서 가장 큰 도움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예배에 보완점으로는 '예배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획 및 구성'이 62.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현장 예배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 및 구성'이 58.1%, '화질 음향' 등 기술적인 부분이 33.1%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 예배를 중단했을 시 교회에 출석해 주일예배를 드리겠다는 의견은 60.4%였으며,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방송을 드리겠다'는 23%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차츰 익숙해져 가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美 캘빈대, 교수진에 동성애 지지 발언 허용키로

대학측 "표현의 자유 인정하되 개혁신학 교인 입장 존중해야"

보수적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북미개혁신교회(CRCNA) 산하 대학이 성(性)에 관한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교수진에게 보장하기로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에 위치한 캘빈대학교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소집해 교수진이 동성 결혼 지지를 포함해, 성에 관한 교단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CP는 캘빈대의 이 같은 조치가 대학 밖의 성소수자(LGBT) 압력단체 또는 교내에서 진보신학을 가진 교수진과 학생들의 상당한 압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캘빈대 대변인은 지난 8일 CP에 보낸 성명에서 교수진은 여전히 "(북미개혁신) 교회의 입장을 존중하는 교육과 개인행동에 대해 대학이 기대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캘빈대 공동체는 150년의 역사를 통틀어 특정 교리 문제에 대한 교수진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동시에, 북미개혁신교회의 고백적 표준을 긍정하고 지지함으로써 잘 봉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대학의 결정을 북미개혁신교회와의 연약 동반자 관계를 존중하고, 신앙고백적 약속과 일치하며, 기존 정책 및 절차에 부합하고, 학문적 자유를 지지하며, 건설적인 참여를 반영하도록 특징 지었다"고 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캘빈대학교에서 열린 북미개혁신교단 시노드에서 대의원의 69%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정의한 '부정한 행실(unchastity)'에 동성애 행위를 포함시키는 데 찬성했다.

또 대의원의 74%는 동성애를 비성경적 행위로 규정할 'CRC 교회에 대한 인간성 보고서'가 "성경적 가르침이 담긴 유용한 요약"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에 위치한 캘빈대학교. ©캘빈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는 북미개혁신교회 내에서 동성애 반대 입장이 신앙고백적 지위로 격상된 것을 의미했고, 신학적 진보주의자들의 반발을 샀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배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HYUNDAI
Getaway Sales Event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2.90%이자가 가능

2.9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60 Months

NEW 2023 HYUNDAI IONIQ5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or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美 UMC 서부 지도부, '공개 동성애자' 감독으로 선출

“전통적 기독교에 반대되는 견해 수용 위한 광범위한 변화”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의 한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한 남성을 감독직에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서부 지역은 최근 공식 회의에서 캘리포니아-퍼시픽연회의 세드릭 D. 브릿지포스(Cedrick D. Bridgeforth)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했다.

캘리포니아-퍼시픽연회의 혁신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였던 브릿지포스는 공개적인 동성애자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감독이 됐다. 그가 감독이 되기 위해 최소 63표가 필요했는데, 그는 유효표 93표 중 73표를 얻었다.

브릿지포스 목사는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남편 크리스토퍼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삶의 목적을 찾은 곳이 교회다. 교회가 저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기관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규칙이나 규정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이었다. 더 크고, 더 좋고, 가능한 문을 열고 우리



UMC 최초 공개 동성애자 흑인 감독으로 선출된 세드릭 브리지포스(오른쪽)가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영상 캡처

가 있어야 할 곳에 새로운 지평을 세우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브릿지포스의 선출은 UMC 장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UMC 장정에는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이를 실천하는 자를 안수하여 감독으로 임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에 UMC 총회 대의원으로 봉사한 종교학자 존 롬페리스(John Lomperis)는 브릿지포스 목사의 감독 선출에 대해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에 반대되는 견해를 수용하기 위한 UMC 지도부의 광범위한 변화의 일환”으로 보았다.

롬페리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새 감독으로 선출된 케네사 빅햄-차이(Kennetha Bigham-Tsai)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지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분명히 (그녀는) 그분의 성육신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브릿지포스 목사의 감독 임명은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UMC의 공식 규칙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아무도 그에게 우리 교단에서 감독 임명을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교직자들에게 간통 및 혼전 성관계와 함께 동성 파트너십을 금지하고 있는 규칙을 알

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에게는 우리 교회의 교리와 도덕 표준을 지지하고 시행하는 신성한 책임이 있다. 감독들이 공개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어기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환자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UMC는 지난 몇 년 동안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동성애 안수를 금하는 공식 규정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분열적인 논쟁에 휘말려 왔다.

교단의 규칙을 바꾸려는 진보주의자들의 노력은 일관되게 실패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안수에 관한 표준을 시행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2016년 UMC 서부 지부는 캐런 올리베토(Karen Oliveto)를 UMC 마운틴 스카이에어리어(Mountain Sky Area)의 감독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고, 그녀는 UMC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동성애자 감독이 됐다.

UMC의 최고결정기구인 사법위원회는 2017년 올리베토의 감독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올해 11월 현재 그녀는 임기를 유지하고 있다.

CP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최근 몇 달 동안 교단 내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교단을 떠나 새로 창설된 글로벌감리교회(GMC)에 합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107세 생일 맞은 美 최고령 여성의 신앙

최근 107세 생일을 맞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여성이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산티(Santee)에 거주하는 아델 줄리 톰슨(Adell Julie Thompson)은 콜롬비아 WLTN 뉴스19와 인터뷰에서 “난 성경 말씀대로 순종했다”며 장수의 비결을 밝혔다.

톰슨은 1915년 10월 10일 태어나 올해로 107세를 맞았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2년 전,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 불과 3년 후였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1941), 그녀의 나이는 26세였다. 그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1963) 48세,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뎠을 때(1969) 53세였다.

그녀는 20명의 미국 대통령을 경험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가 대통령이었다.

산티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이동수단이 말과 노새에서 자동차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1930년대에 대체교사로 일했으며, 1940년에는 남편 에디와 결혼했다.

그녀에게는 3명의 자녀, 6명의 손자, 14명의 증손자가 있다. 강혜진 기자

마커스워십 이영 팀장, 남가주 예배 세미나 개최

12월 4일 오후 5시, 원하트미니스트리 오피스

마커스 예배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 팀장의 예배세미나가 12월 4일(주일) 저녁 5시, 세리토스에 위치한 원하트미니스트리 오피스에서 열린다.

이영 팀장은 ‘예배기획과 예배팀 운영, 그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강의 주제로 마커스워십의 브랜딩부터 총괄한 그의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며, 이번 강의는 찬양팀 인도자와 리더, 찬양팀 담당사역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저녁 식사를 포함해 20달러다.

세미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www.oneheart-usa.com 에서 가능하다.

한편 마커스워십 소진영 찬양인도자, 이영 예배팀장, 건반 권미성 자매는 미주 디아스포라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원하트워십과 연합하여 오는 12월 3일 플러튼 남가주동신교회의 라이브워십집회와 세 번에 걸친 간증집회를 앞두고 있다.



집회 티켓 관련 정보와 티켓구매는 www.oneheart-usa.com 또는 213. 347. 5080으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1면 “미주한인교회 만족도...” 이어]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 68.2%가 동의했고, 반대로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9.8%였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질문에는 84.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년도 교회 중점 사역은 ‘소그룹 활성화’ 주일예배 후 식사 교제는 80%가 찬성 내년도 교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

역에 대한 질문에는 ‘교인들의 친교 및 교제’가 35.8%로 가장 높았고, ‘교회 공동체성 확립’ 29.2%, ‘성경공부’ 28.4%, ‘소그룹 모임 강화’ 27.6%, ‘전도와 선교’ 26.3%, ‘교회학교 교육’ 23.4%, ‘교회 공동성/지역사회 섬김’ 17.5%, ‘온라인 예배 등 온라인 콘텐츠’는 9.7%로 가장 낮았다.

신앙 성장과 소그룹 모임이 신앙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1%로 나타났다. 미주한인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교인들의 친교 및 교제, 교회 공동체성, 소그룹 모임 강화 항목에 대한 필요를 요청하며 내년도 친

교 사역의 강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예배 후 식사 교제에 대한 평가에서는 5명중 4명이 식사 교제가 중요하다고 평가했고,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의견은 17%에 불과했다. 대부분 응답자의 식사교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점심식사 준비는 교인들끼리 순서대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0.9%, 음식 준비는 외부 케터링 업체에 맡기고 배식 및 정리를 교인들이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8%로 나타났다.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 브릿지 Re-Union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위 브릿지 Re-Union 개회예배에서 설교하는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 ©기독일보



위 브릿지 경과를 보고하는 본지 대표 이인규 목사 ©기독일보



위 브릿지 Re-Union 참석 목회자, 사모 기념촬영 ©기독일보

위 브릿지 리 유니온 행사가 지난 10일,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열렸다. 제1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이날 한 자리에 모여, 그날의 은혜와 감동을 나누며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동역자들임을 되새겼다.

개회예배는 박은성 목사가 마가복음 14장 15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만찬의 자리이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나성 영락교회가 주의 종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참석한 목회자들과 사모들에게 내년엔 창립 50주년을 맞는 나성영락교회를 위한 기도를 당부하면서 “나성영락교회가 남가주 지역 한인 교계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예배에 이어 장재효 목사(성은교회)가 “오

직 나의 신으로 된다”(스가랴 4:1-6)라는 제목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며 후배 목회자들의 목회에 필요한 조언을 전했다.

장재효 목사는 “목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역을 떠나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재물에 유혹을 받지 않아야 하고, 맡겨진 목양지에서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사역해야 한다”며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기쁘고 즐겁게 봉사한다면 목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맡겨드리자”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자”고 전했다.

위 브릿지 경과를 보고한 본지 대표 이인규 목사는 “제 1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이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개교회를 넘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고자 애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다”며 “교회가 서로 이어지고 선한 동역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역에 동참을 원하는 교회와 단체, 개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기도와 후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위 브릿지(We Bridge) 사역에 동참하기 원할 경우 전화 213)739-0403 또는 이메일 Email:chdailya@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위 브릿지 컨퍼런스(We Bridge Conference 이하 브릿지)는 팬데믹 기간 어

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회자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가 기획하고 본지(대표 이인규 목사)와 미주CBS(대표 한기형 목사)가 공동으로 마련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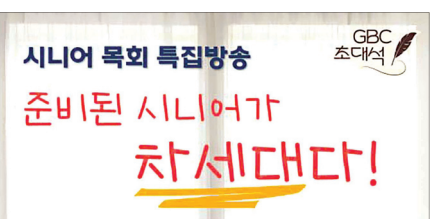
위 브릿지는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시작했으며, 교회간 협력을 도모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 브릿지 참가 교회는 외부 재정 후원 없이 사역하는 교회로 설립 10년 미만, 예배 인원 30명 이하, 목회자 연령 60세 미만의 50개 교회를 대상으로 했다. 참가교회는 남가주 지역 교회들과 결연해, 내년 1월부터 매월 500달러씩 3년간 후원 받으며 서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게 된다.

김동욱 기자

“한인 이민 1세대 고령화, 교회는 시니어 세대 재조명해야”

12월 4일까지 GBC 특집방송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 마련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는 오는 12월(토)부터 12월 4일(주일)까지 4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라는 주제로 GBC 초대석을 진행한다.

GBC 초대석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는 교회 내 시니어들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시니어들이 교회 사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재현신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남가주 지역 여러 목회자들과 학자들을 참여하는 이번 초대석 특집방송은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웨스트힐장로교회 오명찬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김종규 목사가 출연한다.

11월 19일 토요일에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동부사랑의교회 우영화 목사,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의 대담으로 진

행되며, 11월 26일 토요일에는 LA온누리교회 이정엽 목사, 남가주동신교회 시니어교구 담당 김용환 목사가, 그리고 12월 4일 토요일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가 각각 대담자로 출연한다.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현상은 오늘날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민교회의 주춧돌이 되었던 이민 1세대가 이제는 교회의 시니어 세대가 되고 있다”며 “특집방송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는 시니어 세대를 재조명하고 미래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특집방송은 편성시간 외에도 GBC 유튜브 채널에서 재청취가 가능하다.

美 UMC 총회 2024년 4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개최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교단 전체 모임을 여러 번 연기한 가운데 새로운 총회 날짜를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총회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소재한 샬럿컨벤션센터에서 총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김 심슨 총회위원회 위원장은 “샬럿은 우리의 다양한 요구를 가장 잘 충족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원과 참석자들이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것에 만족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웨스턴 노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가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레너드 페어리(Leonard Fairley) 감독은 “우리와 동료들이 성찬식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구하게 될 각

대의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놀라운 환대를 경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4년마다 열리는 UMC 총회에는 교단 법안을 토론했고 통과시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대의원들이 참여한다고 CP는 전했다.

당초 UMC는 2020년 5월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며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교단의 논쟁이 주요 의제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신학적 진보주의자들은 동성애자 안수를 금지하고 동성결합 축복을 금지하는 UMC 정책이 적극적으로 저항해 왔다고 CP는 전했다. 신학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총회에서 교단을 결정하고 UMC를 은혜롭게 탈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이미경 기자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페!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들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회’ 이미지는 ‘권위·보수’... 청년 90% “우리도 구성원”

시민들이 ‘한국교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권위주의적’,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이미지 회복을 위해 시급한 것은 ‘신앙생활 본질 회복’이며, 교회 내 ‘소그룹’은 교회가 공동체로 작용하는 핵심요소로 분석됐다. 또 청년들의 10명 중 9명은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회자 단체인 ‘사림과섬김’의 부설 연구소 ‘코디연구소’와 ‘국민일보’가 기독교 전문 여론조사회사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개신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최근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청년들의 의견을 좀 더 비중 있게 담았으며, 설문은 지난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교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예배 중심(60%), 기도 중심(31%), 도덕적(29%)였다. 반면 현재 한국교회 모습은 ‘권위주의적’(57%), ‘보수적’(46%), ‘전도 중심’(26%), ‘예배 중심’(22%) 순이었다. 교회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책임 소재는 일부 교회의 책임(48%), 모든 교회의 책임(50%)이라고 답했으며, 기독교 이미지 회



서울 오료교회에서 진행되는 기도회에 참석한 청년들. 청년들의 10명 중 9명은 교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오료교회 제공

복을 위해 시급한 것은 신앙생활 본질 회복(52%), 윤리적 삶의 회복(13%), 정치적 편향성 탈피(8%) 순이었다.

사회적 고립도는 일반 국민이 34%였으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고립도는 25% 수준이었다. ‘교회 내 고립도’는 소그룹 참여자가 17%인 반면, 소그룹 비참여자는 46%로 소그룹은

교회가 공동체로 작용하는 핵심요소였다.

충성심이 강한 교인이라도 3분의 1은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는 설교(36%, 중복응답), 권위주의/비민주적(25%), 교인들의 비도덕적 모습(22%) 순이었다.

전체 중 15%는 기독교 신앙을 버릴 생각

을 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20대(32%)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는 기독교인들에 실망이 커서(49%), 기독교가 인생의 의미나 도움을 주지 못해서(21%),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12%) 순이었다.

교회에서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구분되어 있다(59%)고 생각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남자에게 있다(56%)고 응답했으며, 여성목사/장로 안수에 대한 의견은 찬성(73%)이 다수였다.

청년의 위상은 어떠한가. 청년들에게 묻은 결과 교회 행사 진행에 많이 동원된다(82%), 헌신을 강요한다(56%)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은 대다수(90%)였으며, 그 이유로는 청년들도 교회 구성원이고(62%), 시대 변화에 빠르기 때문(17%)이라고 응답했다.

청년 활성화 정책으로는 ‘청년층과의 의사소통의 장 마련’(23%), ‘권위주의 타파’(17%), ‘청년층에게 교회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부여’(13%)를 주로 응답했다. 청년들에 대한 인식 교정과, 그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다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김진영 기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전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죄’

방역 명분으로 한 예배 자유 침해 사건들에 중요한 판례 될 듯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관련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예배 자유 침해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3, 4월 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렸던 사랑제일교회의 교역자와 교인 13명 및 김문수 경사노위원회장에 대해,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김병훈 판사)은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 측이 신도간 거리두기를 하려고 노력했고,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신도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강력한 제한이 필요한 정황이 없었으며,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모색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대표 전광훈 목사)은 이에 대해 “당시 사랑제일교회에는 예배를 막기 위하여 수백명의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교회를 지키기 위한 교인들과 대처하면서 대혼란의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전광훈 담임목사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서울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다”며 “사랑제일교회 교역자들과 교인들은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우며 예배와 교회를 끝까지 지켜냈고,

결국 2년여의 길고 치열한 재판 끝에 법원은 사랑제일교회가 옳았고,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의 서울시가 틀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자유통일당은 “어떠한 대형교회도 이러한 예배 탄압에 대해 함께 투쟁하거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며 “사랑제일교회만이 홀로 외로운 투쟁을 했고 결국 승리하였다”고 평가했다.

자유통일당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의 본질은 종교행사의 자유, 즉 예배의 자유”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집요하게 종교에 개입하고, 교회와 집회를 탄압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눈을 가렸던 잔혹한 코로나 정치방역, 독재방역이 끝나면서 문재인, 정은경, 박원순의 불법적인 조치들이 법원에 의하여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이 모두 깨달았을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이라면서 자화자찬하던 문재인의 역겨운 속뜻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교회와 집회를 마음껏 탄압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다는 의미였다는 것을”이라며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는 미개국가이지 민주주의의 국가가 아니다.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의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가?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10명 중 6명 “한국 정부, 북한인권 문제 공식 제기해야”

북한인권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줄길 바랐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조사는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주)컨슈머사이트(김진국 대표)에서 진행한 2022년 국민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한 온라인으로 조사했고, 조사는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시행됐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 결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55.0%+어느 정도 40.5%)는 응답자가 9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8.2%는 “나빠지고 있다”고, 9.4%는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북한인권이 예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에 비해 7.6%p 감소했고, “나빠지고 있다”는 0.1%p 증가했다. “변함없다”는 응답은 7.5%p 증가해 일반 국민 다수가 북한인권 개선의 변화가 없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에 대해 응답자의 76.4%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23.6%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2.9%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37.1%는 “제기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발표를 맡은 (주)컨슈머사이트 연구본부 박승표 이사는 “응답자의 66.5%는 ‘평소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 33.5%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 중 40대 이하 국민들은 주로 ‘언론·대중매체’를 통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고, 50대 이상은 ‘언론·대중매체’와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송희, 민준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임직예배 및 임직식

- 일시 : 2022년 11월 20일(주) 오후 3시
- 장소 : 충현선교교회 본당
- 집례 : 민중기 담임목사

- 원로장로: 김광성 (1명)
- 원로안수집사 : 김영환 김정호 이희정 (3명)
- 원로권사 : 권향 김옥기 박종분 박필희 백혜숙 변영옥 신영이 윤경희 이미영 조경희 조추자 (11명)
- 시무장로 : 권상엽 라영호 (2명)
- 시무안수집사 : 이줄리안 이건목 양원지 안성철 (4명)
- 시무권사 : 한은실 이은영 김혜원 이경욱 송비키 장사라 유조연 양은영 박재순 최그레이스 정윤미 정승연 이동영 조현미 김글로리아 조경선 박영애 (17명)

※본광고로 초청장을 대신하며, 임직자에 대한 선물이나 화환은 받지 않습니다



충현선교교회

www.choonghyun.org
 Tel (818) 549-9191 Fax (818) 549-9199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내년 목회 소망 있다” 답한 목회자들의 4가지 특징

교회 규모 상관 없이 온라인 사역 강화
소그룹 운영 꾸준히 잘해 오는 목회자
목회 조언 줄 평신도 어드바이저 존재
뚜렷한 목회 비전을 갖고 있는 목회자

◆ 한국교회지도자센터, 목회자 4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코로나 팬데믹의 치열하고도 급변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목회에 소망을 갖는 이들이 있다면 그 특징은 무엇일까. 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더)가 최근 실시한 결과를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내년도에 온라인 사역을 강화할 의향이 있는 목회자 ▲현재 소그룹 운영을 잘하고 있는 목회자, ▲자신의 목회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평신도 어드바이저가 있는 목회자 ▲뚜렷한 목회 비전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여기에 해당됐다.

한지더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하는 교회 4가지 DNA’를 주제로 전국의 교회 목회자 434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조사는 다소 이른 지난해 8월 17일부터 6일간 진행됐으며, (주)지앤컴리서치가 수행했다.

먼저 교회 규모가 클수록, 평신도 전문가를 옆에 두고 자문받는 목회자 비율 높았다. ‘특정 영역에서 자문을 해주거나 필요한 도움을 주는 평신도 전문가’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평균 33% 정도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50명 성도 미만의 목회자는 32%가 ‘있다’고 한 반면, 500명 이상의 목회자는 48%가 ‘있다’고 했다.

또 ‘같이 공부하고 목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목회자 모임’에 대해서는 65%가 ‘있다’고

했으며, 이 중 성도 수 50명 미만의 목회자는 64%인 반면 500명 이상의 목회자는 79%가 ‘있다’고 했다.

목회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는 먼저 목회자들의 절반 남짓인 54%가 ‘뚜렷한 목회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다(매우 그렇다)’고 했다. 반면 ‘목표와 비전을 체계적으로 정리(매우 그렇다)’한 경우는 30%, ‘목표와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매우 그렇다)’한 경우는 32%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즉 목회자의 목회 목표와 비전이 체계화되거나 성도들과 공유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은 대체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목회 전망을 물어본 결과, ‘좋아질 것이다’ 35%,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36%, ‘나빠질 것이다’ 28%로, 내년이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앞섰다.

내년도 목회 환경을 ‘좋아질 것’이라 긍정적으로 예상한 이유로는 ‘성도들의 교회 출석률이 나아질 것 같아서’를 68%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돼서’ 45%, ‘성도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서’ 32% 등의 순이었다.

반면 ‘내년도 목회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상한 경우, 절반(51%)이 ‘전도가 잘 안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성도들의 소속감/충성도 약화’ 41%, ‘헌금 감소’ 36% 등의 순이었다.



©Nycholas Benaia/ Unsplash.com

내년도 목회 전망을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목회자들의 특성을 분석해 이들의 유형을 도출한 결과 4가지 요인이 추출됐다.

위에서 언급했듯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내년도에 온라인 사역을 강화할 의향이 있는 목회자’, ‘현재 교회 내 소그룹을 잘 하고 있는 목회자’, ‘자신의 목회에 대해 자문을 해줄 수 있는 평신도 전문가가 있는 목회자’ 그리고 ‘뚜렷한 목회 비전을 갖고 있는 목회자’이다.

◆ 4가지 특징에 대한 총평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온라인 사역은 이제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어떤 활동에 어떤 채널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 관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소그룹에 대해서 “이는 공동체의 원형으로 ‘서로 돕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실제적

으로 구현하는 현장이다. 소그룹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공동체로 작동한다. 비대면 사회에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게 하는 동력이 소그룹에 있다”고 했다.

또 평신도 어드바이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변화가 빠르므로, 목회자 개인이 이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평신도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은 목회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의 목회철학과 함께 그 교회의 지역적 특성과 성도들의 특성과 역량 등을 감안해서 구체적 목회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른 교회와 다른 나만의 목회 비전과 철학을 갖추고 이를 실현해나갈 때 다양한 영적 욕구를 추구하는 성도들을 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송경호 기자

침신대, 122명 학생 ‘교회지원전도단’으로 20개 교회에 파송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광수, 이하 침신대)는 제36차 교회지원전도단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122명의 학생을 20개 조로 전국교회에 파송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교회지원전도단 파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올해에는 파송교회 목회자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하여 전도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교회지원전도단은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는 과목으로 교회 현장에서 전도훈련을 철저히 받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동시에 개교회에도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교회의 영적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교회 떠난 청년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했다는 소식에...”

경찰로부터 연락 받아, “청년들에게 하루 빨리 복음이 전해지길”

“성경을 계속 가르칠 수 있었더라면, 더 기도해 줬더라면 지금 곁에 있었을 텐데...”

서울 이태원 참사로 제자를 잃은 목회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 시내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양모 목사(39)는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정신없이 사역을 하던 중에 경찰서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청년의 핸드폰에서 저장된 이름 중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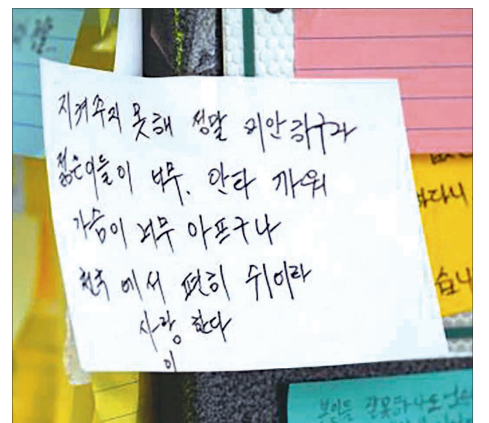
이어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약 3년 전 즈음 교회에 전도가 되어 6개월 정도 함께 신앙생활하던 자매였는데 이번 사고의 희생자가 된 것”이라고 했다.

옛된 얼굴로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했던 자매였다. 성경공부를 하고 나면 궁금증에 대한 질문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남자 친구가 생겼고, 이후론 교회 출석도 뜸해졌다.

그는 “전화를 받은 이후 자책감에 시달렸다. 이 자매가 꾸준히 성경공부를 하고 신앙을 유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과, 더 기도해 주고 돌봐 주지 못했다는 마음에 괴로웠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절박감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대, 20대 영혼들이 하나님을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알고, 그들의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고 전했다. 송경호 기자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송경호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 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번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오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알코올 남용과 이혼 논란’ 페리 노블 목사... “말씀이 날 살려”

지난 2016년 알코올 남용 및 ‘불행한 선택과 결정’으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뉴스프링교회(NewSpring)에서 해임된 페리 노블(Perry Noble) 목사가 회개에 대한 단상을 공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현재 세컨드찬스처치(Second Chance Church)를 이끌고 있는 노블 목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회개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라는 글에서 “2016년 거대한 실패 후, 상황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기 전까지는 나의 실패를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전 7:10)는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모든 일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도처에서 분노, 상처, 혼란, 죄책감,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나 일주일간 광범위한 외래 치료를 마치고 재활원에서 나와서 상황을 살펴



페리 노블 목사. ©뉴스프링교회

본 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지 알게 됐다. (헨리 클라우드 박사의 말처럼) ‘터무니없이 내게 책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회개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 그대로 ‘멈추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사물을 당신의 관점으로 보고 느낄 수 있

게 해주셨고, 이는 치유 과정에서 매우 큰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덕분에 내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불쾌했던 이들에게 다가가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사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 2016년 10월, 노블 목사는 자신이 16년 전 설립한 뉴스프링교회 수석목사직에서 해고된 지 3개월 만에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그는 “난 위선자였다. ‘혼자서는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설교하고, 그 반대로 살았다. 공동체보다 고립을 선택했다. 고립은 나의 의심이 감정을 지배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다고 믿게 만들었다. 술은 또 다른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필요했다. 말 그대로 내가 한 일 때문에 스스로가 미웠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짓말을 믿었다”고 했다.

그는 7개월간의 재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후,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엘리

베이션교회의 스티븐 퍼틱(Steven Furtick) 목사의 축복을 받으며 강단으로 돌아왔다. 뉴스프링교회 일부 리더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는 교회 성장을 돕는 컨설팅 업체인 ‘더 그로우스 컴퍼니’(The Growth Company)를 운영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를 이어갔다.

노블 목사는 그 이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고 고백했다.

그는 “우리가 회개할 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렇게 한다. 우리의 회개는 그들의 반응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복종이다! 구체적인 사과를 한 후 내가 형편없고 이기적이고 죄 많은 결정을 내린 것과 이로 인한 상처, 고통, 혼란에 대해 여러 차례 (서면과 말로도) 공개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거대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제 마음에 주신 변화를 따라 여러 일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방문한 우크라이나 침례신학교 총장 “하나님 기적만이 전쟁 종식”

5일 퍼스트침례교회 설교서 “갈멜산 전투, 엘리야의 일생일대 기회”

야로슬라프 피즈 우크라이나 침례신학교(Ukrainia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UBTS) 총장이 부인 나디아 여사와 함께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 남침례회 교단지인 배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피즈 총장은 6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퍼스트침례교회를 방문해 대럴 윌트니 임시 담임목사와 함께 열왕기상 18장 20-39절을 본문으로 주일설교를 전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출신 동문인 피즈는 러시아의 침공 기간 동안 UBTS에 무료 교육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베푼 남침례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인 리비우에 위치한 UBTS는 올해 재학생 2천 명 전원에 대해 등록금을 전액 면제했다.

피즈 총장은 설교에서 “나는 꿈에라도 전쟁을 겪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위해 나를 준비시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여러분이 그런 말을 했었다면 전혀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민족을 위해 한 가장 큰일은 전쟁이 시작된 2월 24일에 실제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나는 두려웠을까? 그렇다. 많은 사

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킨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뿐만이 아니었다. 엘리야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은 사람인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즈는 엘리야를 “모든 신자가 하나님에게 하신 중요한 역할로 봉사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예표한다”면서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에 맞섰던 갈멜산 전투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엘리야가 여기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산 것이었다. 그는 그때에 그 일을 하기 위해 왔었다”라며 “꼭 강조할 대목은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서로 다른 기회를 갖고 있고 이 모든 기회는 우리의 삶만큼이나 독특하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특별한 시간을 포착하는가? 그것들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놓치는가?”라며 “엘리야는 85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엘리야에게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때가 그의 시간이자 그의 삶이었다”고 전했다.

피즈는 또 “전쟁을 종식시킬 하나님의 기적과, 전쟁 기간 동안 고통받은 교회들의 리



지난 6일 내슈빌의 퍼스트침례교회에서 대럴 윌트니 임시 담임목사(왼쪽)와 야로슬라프 피즈 우크라이나 침례신학교 총장이 함께 설교를 전했다. ©내슈빌 퍼스트침례교회 유튜브

더십이 회복되고 추운 겨울 동안 주민들에게 식량과 안전이 제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다. 피즈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내 발전소의 40%가 파괴되었다.

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기도해달라. 전쟁을 멈추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UBTS는 러시아의 침공 초기 몇 달 동안 난민센터로 사용되어 왔다. 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인도주의 의료 기관인 ‘위케어센터(We Care Centers)’를 통해 실항민 지원

과, 전쟁으로 문을 닫은 450여 개 교회의 목회자 리더십 회복을 돕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올해 2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6490명(성인 6087명, 어린이 403명), 부상자 1만여 명 미만으로 추산했다.

OHCHR은 격전지인 마리우폴(도네츠크), 이지움(하르키우), 리시찬스크, 포파스나, 시에비에로도네츠크(루한스크) 등에서 보고가 지연되어 실제 인명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낙태권 폐지 이후 美 친생명 단체 22배 많은 폭력 경험

CPRC 보고서 “5월부터 9월까지 피해 사례 135건”

지난 5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돛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Dobbs, Jackson) 소송 판결문 초안이 공개된 후 태아 생명 옹호 단체와 개인들이 낙태권 지지 단체보다 천문학적으로 더 많은 폭력에 직면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국 범죄예방연구센터(Crime Prevention Research Center, CPR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월 2일 대법원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후 낙태 옹호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폭력 사건은 6건에 불과했다. 반면, 친생명 성향의 단체나 개인에 대한 공격은 총 135건으로, 22배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됐다.

CPRC 보고서는 지난 5월 2일부터 9월 24일 사이에 발생한 모든 폭력 사건을 집계했다. 공격 유형은 낙태를 찬성하는 낙서로 인한 재산 훼손부터 화염병 테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또 지난 9월 20일 미시간주에서 고령의 낙태 반대 활동가에 대한 총격, 7월 말 캔자스주 10대 낙태 반대 활동가에 대한 공격, 6월 브렛 캐버노 미연방대법관 암살 시도, 인디애나주 생명 옹호 집회에서 활동가에 대한 폭행 및 경찰 폭행 사건 등이 일어났다.



1973년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인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 대법원 의견 초안이 공개된 직후, 친생명 단체인 ‘위스콘신패밀리액션’ 사무실이 화재를 당했다. ©AlexanderShur/ Twitter

CP가 보도한 가장 최근의 폭력 사건은 지난 10월 미시간주 랜싱에 위치한 부활교회(Church of the Resurrection)에서 발생했다.

낙태 권리 지지자 및 단체에 대한 폭력 사례로는 와이오밍주 캐스퍼와 미시간주 칼라마주에서 낙태시술소 방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낙태시술소 자원봉사자 차량 손괴, 오하이오주 소재 낙태시술소 앞에 동물 사체가 든 가방 배치 등이 있다. 또한 뉴욕 햄스테드의 낙태시술소 때문에 쇠사슬과 자물쇠를 채운 뒤 접착제를 뿌린 사례도 CPRC

보고서에 추가됐다.

이 보고서는 폭력 사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부족에 대해 가톨릭교회와 친생명 단체들이 분노를 표명하는 시점에 발표했다.

가톨릭 유권자 단체 ‘가톨릭투표’(CatholicVote)는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직후 미국 전역에서 폭동이 발생한 뒤 가톨릭교회에 대한 공격을 조사할 것을 미 법무부에 요청하며 친생명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 2021년 초, 미국 국가정보장실(National Intelligence)은 특별 위협 대

상으로 “낙태 관련 국내 폭력 극단주의자”를 지목하는 보고서를 발표, 돛스 판결 전부터 다가올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친생명 단체에 대한 폭력 예방이 부실했다는 비난과 함께, 낙태 지지 여부에 따른 차별적 법 집행 논란에 직면해 있다. 지난 6월, 친생명 활동가인 마크 후 씨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낙태시술소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밖에서 경비원을 밀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10월, 혹은 12살 난 아들과 함께 낙태 반대 시위에 참가했고 경비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자 그를 두 번 밀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종교·시민권을 위한 가톨릭연맹’(Catholic League for Religious and Civil Rights) 회장이자 CEO인 빌 도노휴는 척 그래스리 미국 상원 법사위원장(공화·아이오와 상원)에게 서한을 보내 과잉 처벌에 이의를 제기했다.

도노휴는 서한에서 법 집행기관이 “친생명 활동가들의 불법 행위를 추적하는 데는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낙태 권리 운동가들의 불법 행위를 추적하는 데는 관심이 거의 없다”면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이런 식의 과잉 대응은 매우 곤란을 야기하며, 친생명 측이 표적이 됐을 때 법무부의 미흡한 대응과 합쳐질 경우 더욱 곤경에 빠뜨린다”라며 호소했다. 강혜진 기자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正品
100% 정품



Made in U.S.A.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토)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섬김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213)386-2233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에 오후 8:00
Lighter 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한세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를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r)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과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영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기기도(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빙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 내 길에 빛이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미 텍사스 대형교회, 교단 분열 이유로 UMC 탈퇴



미국 텍사스주 사우스레이크에 본부를 둔 화이트 채플은 지난 7일 교인 투표를 통해 UMC 탈퇴를 결정했다. ©Drone Star State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텍사스주의 대형교회가 회중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사우스레이크에 본부를 둔 화이트 채플(White's Chapel)은 지난 7일 찬성 2338표, 반대 160표, 기권 7표로 UMC 탈퇴를 확정 지었다.

공동담임목회자인 존 맥켈러와 토드 레너 목사는 투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일부 교인이 투표 결과에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들은 "연합감리교회의 친구와 동료들, 평신도, 성직자, 감독의 지도력을 위해 기도하자. 지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기이며, 그들 앞에 놓인 일은 극히 중요한 만큼이나 벅찬 일"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최근 수개월이 "목회하기 힘든 겨울 계절이었지만, 교인들의 지지와 기도에 힘을 얻었다"라며 "미래를 향해 눈을 돌릴 때 우리는 힘을 얻는다. 장차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와 사랑의 보살핌에 우리 자신을 맡길 '다음 단계'를 세우는 일에 분주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화이트 채플은 탈퇴 절차를 시작할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UMC를 떠나는 이유가 "교단 내 지속적인 분열" 때문이라고 밝혔다.

화이트 채플은 "우리는 오늘날 무너져 가는 기관인 UMC를 경험하고 있다. 또 주어진 대안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신학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것이 우

리가 재편을 모색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교와 사역 모두에서 협력적인 방식으로 다른 감리교 교회들과 연대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최근 수년간 UMC는 동성혼 주례와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 안수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다. 결국 2019년 UMC 특별총회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식장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동성혼 주례와 동성애자 안수를 강행하며 교단의 규칙을 공개적으로 거부해왔다.

지난주 UMC 서부 지부는 최근 공식 회의에서 공개적인 동성결혼 기혼자인 셰드릭 D. 브릿지포스 주교(캘리포니아-피시픽 연회)를 감독으로 선출했다. 이는 UMC 장정에 명시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을 안수해 감독으로 임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종교및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 Democracy)의 존 톰페리스는 브릿지포스 목사의 감독 임명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UMC의 공식 규칙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톰페리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주교들은 우리 교회의 교리와 윤리적 표준을 지키고 시행할 신성한 책임이 있다. 주교들이 이러한 기준을 공개적으로 어긴다면 이는 임원 환자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진 기자

'기독교 깃발' 거부했던 보스턴 시청, 210만불 소송비 떠안기로



보스턴 시청 ©Creative Commons/Daderot

장에 기독교기를 게양했다.

캠프컨스티튜션의 변호를 맡아 온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의 멧 스테이버 회장은 "5년간의 소송과 미 대법원의 만장일치 승소 이후 해럴드 셔틀레프와 함께 마침내 자유의 요람인 보스턴에서 자유가 떨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버는 "기독교 깃발 사건은 스칼리아 판사가 심야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악귀라고 묘사한 1971년 '레몬 십자기 준(Lemon Test)'을 뒤집는 중요한 선례를 낳았다"면서 "셔틀레프 대 보스턴 시(Shurtleff v. City of Boston)의 사건은 마침내 51년 동안 수정헌법 제1조를 괴롭혔던 악귀를 물었다"고 밝혔다.

레몬 대 커츠만(Lemon V. Kurtzman) 사건은 197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펜실베이니아 주의 정책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판례이다.

이 판결은 정부 정책이 비종교적이어야 하고, 특정 종교를 향상 또는 억제할 수 없으며, 정부와 종교가 뒤섞이는 상황을 제한해야 한다는 레몬 십자기 기준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주정부의 정책은 3가지 중 하나라도 어길 시 '국교금지조항' 위반으로 간주되어 왔다.

미셸 우 보스턴 시청 대변인은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리버티카운슬은 민권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로서 법령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시 법무부가 청구 비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 수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최종 합의했다.

김유진 기자

기독교 깃발의 게양을 거부했다가 패소한 미국 보스턴시청이 기독교 단체에 2백만 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8일 보스턴시청은 승소한 보수 기독교 시민 단체 '캠프컨스티튜션'(Camp Constitution)의 변호사 비용 210만 달러 상당을 대신 지불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캠프컨스티튜션의 활동가인 해럴드 셔틀레프는 지난 2017년 보스턴시청 앞 길에 기독교 깃발 게양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기독교 깃발 게양이 정부가 종교를 지지하는 '정교분리 위반'에 해당한다며 요청을 거부했고, 셔틀레프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미 대법원은 보스턴시청이 기독교 깃발의 게양을 거부한 것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시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신앙 기반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결국 보스턴시는 5년 후인 올해 8월 3일 시청 광

인도네시아서 'G20 종교 포럼' 사상 첫 개최



▲2021년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복음연맹(WEA) 토마스 슈마허 사무총장(왼쪽)과 인도네시아 무슬림 단체 나흐들라틀 울라마(NU)의 야야 초릴 스타쿠프 회장. © 나흐들라틀 울라마 제공

이달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서 2일부터 3일까지 'G20 종교 포럼(R20)'이 처음 열린다. 이번 포럼은 인도네시아 최대 온건 이슬람 단체인 나흐들라틀 울라마(Nahdlatul Ulama, NU)가 주관한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R20 포럼에서는 종교가 문제가 아닌 해결책의 일부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세계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과 종교 극단주의의 해결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종교적 정체성의 무기화 방지, 세속적 권력 구조에 윤리 및 영적 가치를 불어넣는 방안 모색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분쟁과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종교 공동체 내외부적으로 진솔하고 현실적인 대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이 행사에는 주요 20개국의 종교 지도자 160명을 포함해 400명 이상이 참석하며, 주요 단체로는 로마가톨릭교회, 영국 성공회, 세계복음연맹(WEA), 세계무슬림연맹(WML) 등이 있다.

연사에는 나이지리아 성공회 대주교인 헨리 은두쿠바, 나이지리아 북부 소코

토 가톨릭 주교인 매슈 쿠카, 이라크 아르빌의 칼데아 가톨릭교회 대주교인 바샤르 와르다 등이 나서며, 토마스 슈마허 WEA 사무총장도 참석한다.

한편 자카르타포스트(JP)는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 우익단체인 국민의용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도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인도 내 정치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폭력적 갈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가 속해 있다.

NU는 최근 몇 년 동안 가톨릭교회 및 세계복음연맹과 종교 간 현안에 대해 협력해 왔다. 특히 세계복음연맹과 NU는 서아프리카의 감비아 공화국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의 전면 시행을 저지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 왔다.

G20 정상회의는 이달 15일부터 양일간 브라질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푸틴은 지난달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회의에서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거나 내가 참석할 수도 있다. 아직 검토 중"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김유진 기자

“올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사망자 4020명 육박”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첫 10개월 동안 이슬람 무장 단체에 의해 최소 400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2300명 이상이 납치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아남브라주에 본부를 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인 '국제시민자유법치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Civil Liberties and Rule of Law, 이하 인터소사이어티)는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2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살해된 기독교인 4020명 중 2650명이 '풀라니족(Fulani)' 또는 '이와 연계된 이슬람 단체'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ISWAP), 보코하람(Boko Haram), 안사루(Ansaru) 등 무장 단체의 공격으로 인해 기독교인 450명이 숨졌으며, 잠파라(Zamfara)주의 풀라니 도적단 및 분파 단체로 인해 사망한 기독교인은 370명에 이른다.

인터소사이어티를 운영 중인 기독교인 범죄학자 에메카 우메야그발라시에 따르면, 풀라니 목동, 잠파라 도적단 및 무장 단체들은 올해 2315명 이상의 기독교인을 납치했으며, 이중 1401명이 1월과 6월 사이, 915명은 7월과 10월 사이에 납치됐다.

이 단체는 납치된 기독교인 2315명 중 약 10%인 231명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거나,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했거나 몸값을 지불하지 못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올해 월 평균 4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학살되고 231명이 납치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1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납치된 셈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나이지리아 정부의 부실한 통치와 폭력을 조장하고 종교적 자유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2020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열린 경찰 가혹행위 규탄 기도회에 참석한 시민들. ©Tope. A Asokere/ Unsplash.com

경고한 지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USCIRF는 나이지리아 폭력 사태에 대한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나이지리아 대부분 지역에서 비국가행위자 폭력이 증가했으며, 이 폭력은 파괴적인 인도주의 및 인권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종교에 근거한 폭력만이 아닌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기타 침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나이지리아에서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에는 호전적인 이슬람 폭력, 종교, 민족, 지리적 유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정체성 기반 폭력,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개인에 대한 군중 폭력,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USCIRF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에 나이지리아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에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9월에는 33개 단체와 35명의 개인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CPC 재지정과 기독교 박해를 조사할 특사를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행정부는 나이지리아를 특별우려국 명단에 등재했다. 그러나 2021년 11월 바이든 행정부 산하 국무부는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를 CPC 목록에서 해제했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환어 침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OC예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수요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200M) 8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유초등부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s.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9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면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환어침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침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주일학교 화-금 5:3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김한오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몰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종교동부 오전 11:15 환어부 오후 1:00 KM대학원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재민예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6:00(화-금)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78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페르시아 난민과 마지막 예언의 성취(1)”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20년 말 기준으로 세계 난민의 수를 8천 240만 명으로 발표...



이상훈 목사 주미전선교회 대표

십자가 사랑밖에 없음을 필자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필자는 이슬람 나라 각지를 다니면서 난민들을 전도하고...

특히 이란과 페르시아 난민들은 내전과 기근을 피해 이방의 나라로 스며 들어와 복음주의 기독교인 선교사들과 NGO 단체들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07년에 처음 터키에 갔을 때 그 땅의 기독교인은 1천 명의 외국 선교사들을 포함해도 5천 명 안팎이었다...

필자는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선교 단체에서 지난 15년 시간을 보냈다. 수많은 이슬람권 나라를 매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난민 문제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나 심지어 유엔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믿고 기쁨을 느낀다. 페르시아 민족이 그중 하나다. 이제 곧 복음주의의 개신교 선교의 리더십이 옮겨질 것이다. (계속)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은 학창 시절에 꼭 읽고 싶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야기 중심인물들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교도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제롬과 그의 외사촌 누나 알리사 사이의 사랑이 소설의 중심 스토리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노력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위대함은 자신의 신념을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새로운 가치들은 사르트르와 카뮈 같은 다음 세대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좁은 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알리사와 제롬은 어릴 적부터 엄격한 청교도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합니다. 어느 날 열네 살의 불안정한 소년이었던 제롬은 자신보다 두 살 위인 외사촌 누이 알리사를 사랑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알리사도 어머니의 불륜과 가출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채 제롬을 의지합니다. 알리사와 제롬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알리사의 동생이 제롬을 사랑하는 것이 첫 장애였습니다...

1894년 어머니가 죽자 지드는 첫사랑이었던 사촌 누이 마를렌느와 결혼합니다. 마를렌느는 지드보다 두 살 연상의 사촌 누이였고 지드의 사랑을 거부했지만, 지드의 끈질긴 구애로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1947년이 지드에게는 최고의 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작가로서의 탁월함에 피나는

입니. 도덕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알리사는 자신을 향한 제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제롬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우상이 된다고 자책하며, 제롬을 향한 사랑을 절제하며 마음을 달랠니다...

이런 아픈 마음을 알리사의 기도 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제롬과 제가 함께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소서! 주여, 아니옵니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길은 좁은 길이옵니다. 돌이켜 나란히 걸을 수도 없는 만큼 좁은 길이옵니다...” 알리사는 자신이 선택한 ‘좁은 길’에 만족하려고 애쓰지만 알리사는 갈등과 번민으로 점점 쇠약해집니다...

앙드레 지드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이 작품은 독자들의 호평과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비평가들도 찬반양론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이 보여주는 사랑은 지나친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사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극찬했습니다.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와 참사랑의 가치를 알려주었다고 호평했습니다. 윤리와 도덕 그리고 청교도적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가치를 보여 준 작품으로 평가 받은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 자신의 경험과 아픔이 녹아 있는 이 작품에서 우리는 앙드레 지드의 아픈 사랑 이야기를 읽습니다. 몹시 사랑해서 결혼한 사촌 마를렌느와 결혼 생활에 실패한 앙드레 지드는 작품에서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세속적 사랑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해 가는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세기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등.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1204 W. 163rd St. Gardenia, CA 90247.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원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어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장재호 목사의 은혜의 샘

남은 자에 의한 회복의 섭리

룻기 1:1 ~ 22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본문) 1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헬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2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헬 에브랏 사람들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중략)...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1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2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헬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헬에 흉년이 들어 곤란하게 된 것은 죄 값의 징계였는데 회개하도록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말론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재산을 정리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저주받은 땅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했던 것입니다.

1. 베들레헬을 떠나는 불행

베들레헬은 떡집이란 뜻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으로 예고했고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하시며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베들레헬은 곧 오늘날의 교회와 같아서 강단으로부터 목자를 통하여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이 무진장 공급됨으로 그 교회에 속한 양떼가 배불리 먹고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소망을 가꾸게 하는 곳입니다. 양떼가 생명의 떡집을 떠나 저주받은 이역 땅 모압에 가서 안주하며 웰빙(well-being)하겠다고 자리를 잡은 것은 신앙회복을 위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반역일 뿐 아니라 모압으로 가져간 그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서 베들레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더 잘 섬기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죄악의 도성에 가서 탕진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배은망덕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남았던 것입니다. 왜 가장인 엘리멜렉이 서둘러 죽어야 했는가를 남은 가족들이 바로 깨달아서 서둘러 생명의 떡집 베들레헬으로 돌아갔더라면 두 아들마저 객사하는

불행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다가오는 죽음을 깨닫지 못한 불찰로 두 아들마저 죽고 결국 나오미와 모압 여인인 청상과부 두 명과 세 과부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두 아들도 객지에 물어버린 처참한 신세가 되어 비통하기 이를 데 없는 참담하고 불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2. 베들레헬 회복의 복음을 듣고 귀향을 서두르는 나오미(6절 이후)

나오미가 모압생활 10년 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청상과부가 된 모압 여인인 두 자부와 함께 지내는 세월은 탄식과 절망이며 너무나 처절하고 참담한 신세를 슬퍼하며 통곡하는 세월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자 나오미가 베들레헬으로 돌아갈 뜻을 정한 것은 베들레헬을 떠난 것이 객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원인임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13절 후반 말미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헬(하나님의 떡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각기 친절정으로 돌아가 개가하여 인생을 새 출발하도록 강권했을 때 큰머느리 오르바는 작별인사하고 돌아갔으나 작은 머느리 룻은 극구 사양하며 끝까지 시어머님과 동행동숙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며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어머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부득이 룻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았거나 성공한 나오미가 아닌데도 룻이 그토록 시모님을 붙좃아 따른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겠고, 또 룻도 하나님의 매를 피하여 도망가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과 매를 맞은 후에라도 중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신도는 반드시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되고 믿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3. 회복받기 위한 회개의 진실성(19절 이하)

회개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마침내 베들레헬 성문에 들어서는 나오미에게 베들레헬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고 떠들썩했을 때 나오미(기쁘고 즐거움)가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쓰고 괴롭다)라고 불러 달라며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고 했으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라고 고백한 것은 자

기 가족이 베들레헬을 떠나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피하고 모압 땅에 돈 많이 가지고 가서 불신세계와 어울려 잘 살아 보겠다는 웰빙의 꿈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되며 하나님을 능멸한 죄, 배은망덕한 죄악의 행보였음을 뼈가 저미도록 후회하며 통탄하는 아주 솔직하고 진실 된 깊이 있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생명의 떡집 진리의 교회를 쉽게 떠나 지옥으로 쏠아가는 죄악의 흥수에 휩쓸리거나, 주께서 맺어주신 목양지간(牧羊之間)의 인연마저 헌신짝 버리듯 믿음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목회의 사명을 위해 몸부림쳐 온 목자의 가슴에 또 하나의 못을 박는 아픔보다, 떠난 양의 당하게 될 불행과 멸망을 우려하며 가슴 조여야하는 안타까움을 어찌 할 것인가!?

4. 룻을 통한 나오미의 회복섭리(4장 10절 이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BC 1110년대)에도 이방 여인 모압 태생의 룻을 택하시어 나오미의 자부가 되게 하고 시부와 시속 남편까지 남자라곤 다 죽어버린 불행한 가정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가정의 시모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헬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에 편승하여 룻도 나오미의 하나님이자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철저히 믿는다는 고백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나 고백이 아니라 회개하는 나오미에게 회복을 위한 자료가 되게할 룻으로 또한 이방 구원의 의지를 밝히시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룻을 택하셨고 불드시고 인도하심으로 베들레헬에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였고 오벳을 낳게 하여 다윗왕조의 계보에 등재될 뿐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공히 등재되는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모였으나 룻의 친모와 같은 관계와 역할로 룻이 보아스에게 낳은 오벳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양육하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자보다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4:13-17)

진리의 떡 생명의 떡집인 교회를 떠나 저주받은 모압과 같은 죄악세상에서 어리석은 기대와 허황된 꿈에 도취되어 세월 허송하며 실패와 멸망을 재촉하지 말고 서둘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목자와 교회를 찾아 돌아가시오! 거기엔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의 두 팔을 벌리시고 그대를 뜨겁게 환영하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과 은혜보장의 생명길로 회복시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과 같이 1장 3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았더라, 죽고 남았더라가 되풀이 되는 과정에서 한 가정이 씨가 말라 몰락하는 진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 삶으로, 없어지거나 죽어가기 시작하거나 서둘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모든 것으로 회복 받으라는 징계적 섭리인줄 깨달아 물질이나 명예나 목숨이 더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 받으십시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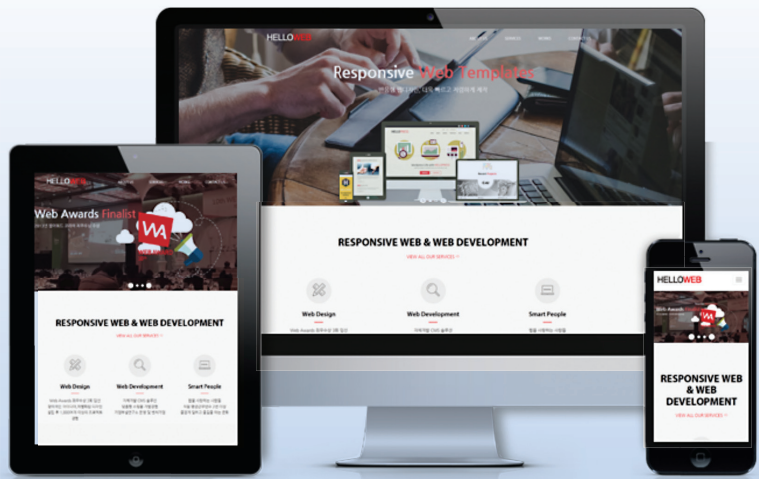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미국 신문 설교		AM131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교회 웹사이트 제작 \$300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제작비	\$300 +
기본사항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약함) 소개/비전/사역/설교/게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추가사항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약함) 소개/비전/사역/설교/게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관리비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컨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 \$10 +
이미지 작업: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강준민 칼럼

초심은 첫사랑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창립기념주일이 되면 거듭 초심(初心)을 생각합니다. 초심을 지속적으로 가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초심은 처음 먹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초심은 순수합니다. 초심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게 되면 순수한 마음이 변질됩니다. 겸손했던 마음이 교만하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방심하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열정이 식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주하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나태해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 초심을 가꾸어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지

키는 것은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첫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결혼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심은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은 순수합니다. 첫사랑은 설렘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첫사랑은 서로를 어려워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첫사랑은 서로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서로가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합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결혼 생활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결혼기념일을 지키면서 거듭 초심을 가꾸어야 합니다. 초심을 가꾼다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 나누었던 그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창립기념감사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예배소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 2:4). 예수님은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계 2:5). 예배소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던 것입니다.

초심은 “다움”입니다. “인간다움”이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질이나 덕목입니다. 성도가 추구하는 초심은 “교회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이란 교회 본질에 충실한 것입니다. 교회다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다움”이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 1:23).

“교회다움”이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힘쓰지 않는다면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복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전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마 28:19-20).

“교회다움”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요 4:23). 선교의 마지막 목표도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계 7:9-10).

“교회다움”이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막 11:17; 사 56:7).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늘 불타야 합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교회다움”은 섬김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세상은 교회가 섬길 때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교회다움”에 충실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거듭 초심을 가꾸도록 합시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주님의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 그리고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한 열정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민종기 칼럼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2위 하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내려오신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혹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라는 명칭은 모두 타이틀, 곧 예수의 특성을 말하는 직함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를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라고 말하며, 이를 “믿음의 그리스도”(Christ of faith)와 분리하여 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덧씌워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관한 허구적인 믿음을 제거하고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기적과 이사’(signs and wonders)가 가짜로 만든 날조된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와 믿음의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고 고백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역사 속에 실재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언된 “그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입니다. 많은 ‘사람의 아들’인 인자(人子) 중의 하나가 아니라,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언된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단 7:13).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고발할 거리를 찾는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 26:64)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人子)이시지만 천자(天子)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근의 예수에 대한 연구도 전통적인 기독교론과 함께 예수론으로 대별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수론 신학자들로는 메노나이트 계통의 학자

로서 존 하워드 요더나 스텐리 하우어워스 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론 즉 아래로부터의 예수 연구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기독교론 즉 그리스도론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중에서 올리버 오도노반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론적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을 윤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 대하여 죽으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론과 기독교론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높아짐이 없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김한요 칼럼

가을 단풍+짜장면보다 베델교회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이번 한국 방문 시기는 단풍이 절정이던 때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자문위원 모임과 코로나로 인해 밀렸던 스케줄을 한꺼번에 진행하느라 잠깐 시기가, 기대치 않았던 단풍의 절정과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흑백이던 세상이 아름다운 총천연색으로 변해 눈 앞에 펼쳐지니 저절로 탄성이 나왔습

니다. 늘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17년 넘게 살면서 가을 단풍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기대되는 설렘이지만, 뜻하지 않는 가을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성도들과 단풍 구경 갔다가 만난 짜장면집에 쓰여 있는 문구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맛집으로 소문난 짜장면집이었는데,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짜뽕 없습니 다. 탕수육도 없습니다. 짜장면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당이라 하지 않고 짜장면집 이라고 소개한 식당인데, 손님들은 한 시간 반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겨우 들어간다고 합니다. 식당에 들어서기 전 또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 “우리는 뽕한 음식을 팔지 않

습니다.” 메뉴도 필요 없이 달랑 짜장면만 하나 있는 식당이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 순간 또 하나의 글귀가 손님을 반깁니다. “이 문만 통과하면 손님 집입니다.” 당당함을 넘어 비범함과 묘한 따뜻함마저 느껴지는 식당입니다. 주문받을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나오는 짜장면은 모두 “내 평생에 먹어본 짜장면 중에 최고다.”라며 먹는다고 합니다. 직원들뿐 아니라, 사장님까지 나와서 짜장면 먹는 법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짜장면 맛을 한층 돋워 주는 기분 좋은 짜장면집이었다고 합니다.

가을 단풍 구경 나온 손님들에게 단풍보다 더 기분 좋은 짜장면 맛을 보게 하는 식당의 당당함이, 이 시대의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문득 해 봅니다. 교회 주차장 입구에 이런 간판 하나 세워 놓으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다른 메뉴 없습니다. 복음만 있습

니다.” 주보를 받아 들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 가는데, 헌금함 옆에 또 하나의 사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이 하나님의 집(베델)의 VIP입니다.”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밝은 표정의 성도들부터 예배 후 카페에서 만나는 맛있는 커피까지 베델 성도님들의 친절은 마치 고향 내 집에 온 것처럼 편하고 포근하게 합니다.

짜장면집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돈 내고 나갈 때 있는 글귀가 손님을 웃게 합니다. “가끔 와야 짜장면이 맛있습니 다.” 자주 오지 말라는 말 같지만, ‘안 오면 당신 손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물론 교회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올수록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최소입니다. 가을 단풍을 잊게 하는, 매일 와도 맛있는 우리 베델교회 되십시오.

박동식 칼럼

점과 점의 거룩한 연대



박동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배가 아프다. 무얼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잘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배가 아프다. 누가 대형교회 담임으로 갔다는 소식에 배가 아프다. 자신의 처지는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이 이름을 내면 배가 아프다. 배 아픈 이유도 무궁무진하다. 어쩌면 이런 배 아픈 증상은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본능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해서 모두 바른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돈이 받을 사서 배가 아픈 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나타나는 증상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믿는 이들도 같이 배가 아파야 할까. 본능이니 배는 아파도 시키 할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자기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일 거다.

아픈 배를 참고 서로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함께 하다가도 한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쉽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를 축복하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은 모든 설교는 울리는 징과 같을 것이다. 자신에게는 열매가 없어도 다른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

시는 거룩한 연대 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연대’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을 끌어들이 아버지께 대한 반역을 시작한다. 그 반역으로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자 한다. 하지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들의 두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려보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자 한다. 또한 다윗은 친구 후새를 압살롬에게 가게 한다. 후새가 소식을 전해를 때까지 광야 나무터에서 기다린다.

이제 후새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과정을 보자. 후새가 압살롬을 만나 ‘자신은 더 이상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르겠다’ 하면서 ‘압살롬 왕 만세’ 한다. 그렇게 해서 후새는 압살롬의 신뢰를 얻는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자신이 세운 모략을 말한다. 12,000명을 뽑아서 다윗 왕만 죽이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압살롬도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도 좋게 여긴다. 결정하기에 앞서 압살롬이 후새의 의견도 들어본다. 이제 올 것이 왔다. 후새는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하다가 우리 중 몇이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가 쫓는다는 소문이 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한다. 대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왕께 불러 모으고 난 뒤, 왕께서 그 많은 군대를 친히 거느리고 전쟁터로 가시라 한다.

압살롬이 후새의 계획을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좋게 여겨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좌절시킨다. 이제 후새는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야 한다. 먼저 후새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 오늘 밤을 광야 나무터에서 보내지 말고 강을

건너가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전멸할 것’이라 전하라고 한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신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사람들의 눈에 띄이지 않으려고 ‘에스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어느 여종을 보낸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가서 알린다. 탄로가 나자,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바후림 마들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숨는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 우물 아귀를 덮고 찢은 보리를 넣어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한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는지’ 묻는다. 그 여인은 ‘그들이 방금 저 강을 건너갔다’고 말한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다윗 왕에게 가서 강을 건너가시라 하자 모두 요단강을 건너간다.

후새의 처음 말이 다윗에게 닿는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 같다. 후새->사독과 아비아달->여종->아히마스, 요나단(바후림 여인의 도움)->다윗. 후새와 다윗 사이에 중간 과정을 연결해 주었던 인물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비록 작은 역할을 담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점이 많아지면 선이 된다. 그런데 그 선에서 하나의 점이라도 빠지면 선은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니 작은 점 하나라도 얼마나 소중한가.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원제: 그의 나라 온 땅에)이라는 찬양곡이 있다.

가사가 이렇다.

아주 작은 어린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 으시는 하나님 /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 후렴)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2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한 공동체다.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 나라 계주 경기의 한 구간을 담당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손에 들려 있는 복음의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음 주자에 건네주며, 우리 귀에 담겨 있는 기쁜 소식을 다음 사람의 귀에 전해주는 것이다.

불가사리들이 조류에 휩쓸려 해안으로 밀려오자, A가 햇볕에 말라 죽게 된 불가사리를 다시 물에 던져 넣는다. 이것을 본 B가 A에게, ‘당신이 그러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라고 물었다. A는 다른 불가사리를 집으며 “애한테는 변화가 있겠지요!” 했다. 이 예화를 언급하면서 리퀴드(liquid) 교회 담임 목사인 팀 루카스는 “한 사람, 한 아이, 한 가족, 한 아파트를 위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1」 '고 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작은 것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다.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점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이 있음을 깨닫고 점과 점으로 이어져 있는 거룩한 연대에 틀어 없게 하자. 그렇게 이어진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가.

1) 팀 루카스, 워렌 버드, 유평희 옮김, 『리퀴드처치』 (규장, 2022), 370-371.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려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샵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위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www.Kidokshop.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collisioncenter@gmail.com

30년 사고방식만 바꾸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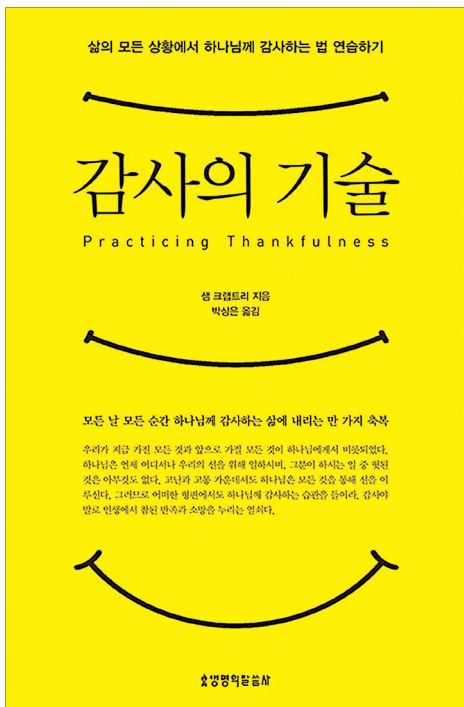
영양이 정성이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찰밥, 오뎅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감사가 사라진 세상, 범사에 감사하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 '감사의 기술'



해 몸부림친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런 버려진 상태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요구된다. 요컨대 감사는 복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한다(엡 5:20).

샘 크랩트리 목사는 존 파이퍼 목사가 섬겼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20년 넘게 함께 사역한 목사이자 교사다. 조금 생소한 저자의 책은 추천사를 자세히 보게 되는데, <감사의 기술>을 추천한 사람은 조니 에릭슨 타다, 엘버트 몰러, 웨인 그루뎀, 데이비드 마티스 등 복음주의 안에서 충성스럽게 가르치고 섬기는 일꾼들이다.

이 책의 부제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연습하기'인데, 감사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업설명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공을 일구려는 자기개발서 같은 기독교 서적과 달리, 감사를 철저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거래하는 수단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자의 고백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크랩트리 목사의 책 <감사의 기술>은 목적이 분명하다. "이 책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따라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그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점차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보다 진지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감사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미래에 하게 될 후회를 최소화하고, 미래에 누릴 안락은 확대시키는 것이다(17쪽)."

감사는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에게 두신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이기 때문이다(살전 5:18). 하지만 감사는 단지 의무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다(44쪽)".

저자는 감사도 훈련이라고 말한다. 감사는 믿음의 훈련이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까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은



감사도 '기술'이다. ©픽사베이

혜는 밤마다 풍성하여 매일 온종일 당신을 불들어 준다. 은혜는 끝없이 주어지지만,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죄인들에게 감사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감사는 변화를 넘어 계발을 필요로 한다(102쪽)."

크랩트리 목사는 실제로 100가지 감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 목록을 참고하여 독자들은 생각지 못했던 감사제목들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부모는 어린 자녀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때, '감사해야지'라고 가르친다. 그것이 마땅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해 보라.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가? 그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헤아릴 수 없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받고 내일도 받는다.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호의에 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저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감사'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감사의 당위성, 필요성, 감사의 이유와 목적과 결과 등을 성경적으로 제시한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발견하게 한다. 그 결과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말세에 감사가 사라진 이들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감사의 기술을 배우는데, 이 책 <감사의 기술>이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조정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감사의 기술

샘 크랩트리 | 박상은 역
생명의말씀사 | 2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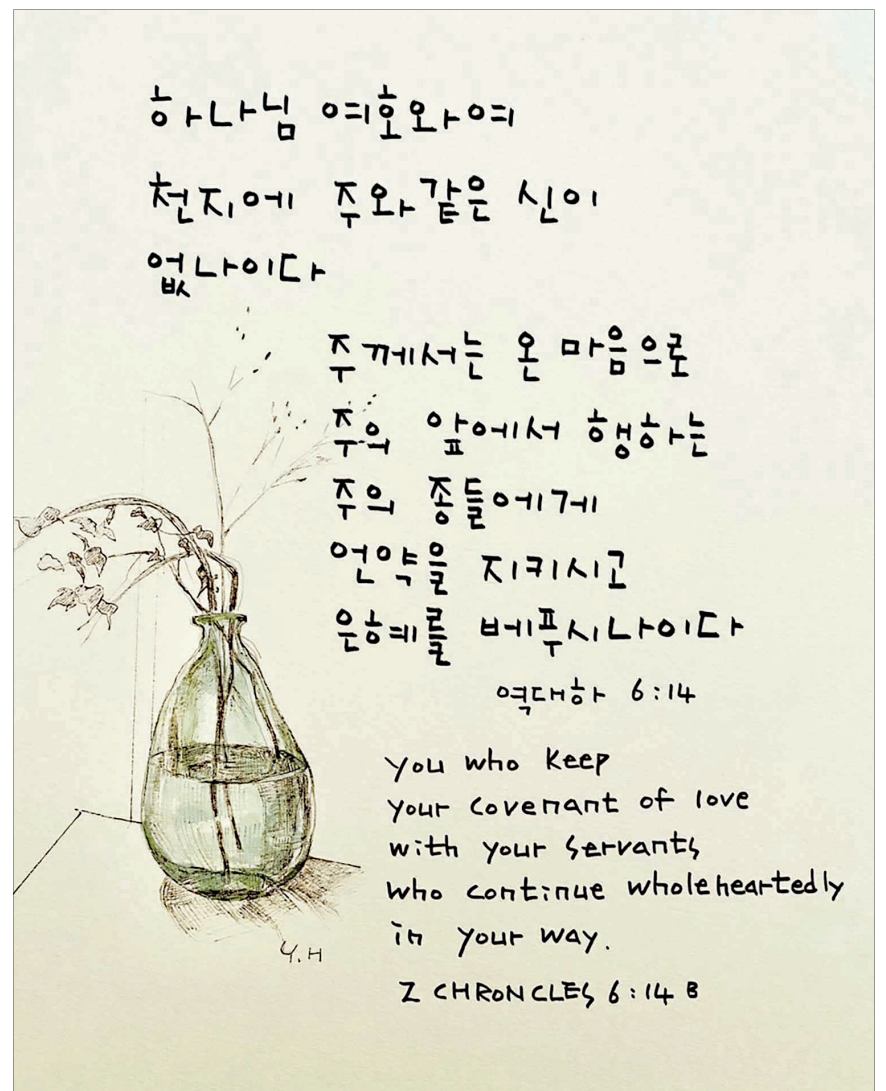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려

감사야말로 인생에서
참된 만족과 소망을
누리는 열쇠다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말지를 결정한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 중 하나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꼽았다(딤후 3:2). 감사가 좀 부족한 삶이 뭐가 그리 문제인가?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알되 마땅히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 세상에 난무한 모든 불의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롬 1:21).

하나님은 만물과 양심을 통해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시고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매 순간 공급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허망하고 미련하며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둬를 당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터진 웅덩이들을 찾고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을 가진 채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인도자 소진영 소개
마커스워십 예배 인도자 & 싱어송라이터,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 주내침교회 찬양사

미주 디아스포라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연합

라이브 워십 집회

DEC 03 · 토 7PM

@남가주동신교회 본당

MARKERS WORSHIP
마커스워십
인도자 소진영
X
원하트워십
ONEHEART WORSHIP

대표곡 소진영 1집 | 마커스워십 2016 ~ 2019
마커스워십 스튜디오 (2021) | Go with the Lord (2022)

주요 앨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 오직 예수뿐이네 |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 주 은혜임을 이 주는 완전합니다 등

(티켓 \$20)



티켓구매 링크

ONEHEART MINISTRY x MW

동역 | GBC, 기독교일보, 남가주동신교회, ANC 은누리교회, 리노한인장로교회, 산호세새누리교회

213.347.5080 | myoneheartministry@gmail.com
oneheart-usa.com

*후원수익금은 미주 디아스포라 예배 인도자들을 세우는데 사용됩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재벌집 막내아들> (1)

<재벌집 막내아들>, 반자본주의의 열증하는 대중문화

반자본주의의 부각, PC 이념과 현실적 상황에서 출발 계층 이동 기회 막힌 시청자들 분노, 재벌들에 둘러 복수와 사회주의적 분배 결말 결합, 비현실적 혼종 예수의 “재물 나눠주라” 명령, 분배 아닌 예수 따름

◆재벌의 이미지 변화: 백마 탄 왕자에서 만 악의 원흉으로

금주부터 JTBC에서 방영되는 <재벌집 막내아들>은 2017년 공개돼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동명의 장르소설 원작 드라마로, 재벌과 환생이라는 자극적인 요소를 중심 소재로 삼는 작품이다. 송중기와 이성민 배우가 서사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두 주역을 맡는다. 서사나 캐스팅 양 측면에서 화제성이 만발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의 서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흡입력이 있다. 재벌 가문인 순양가의 음습한 일들을 처리해 주던 총복 윤현우(송중기)는 모종의 일로 자신이 섬기던 가문으로부터 토사구팽당해 조용히 살해된다. 그러나 죽음 직후 시간을 거슬러 자신이 순양가 막내아들로 환생해 되살아난 것을 깨닫고, 미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가문의 경쟁자들을 하나씩 처분하면서 결국 순양가의 부와 권력 전체를 집어삼키는 복수를 완성한다.

이처럼 소시민이 특별한 계기를 맞이하여 사회의 타락한 재벌이나 율령자들에게 치밀한 복수를 감행하는 서사는 최근 드라마계에 단골처럼 채택되는 서사 공식이다. 올해 SBS <어게인 마이 라이프>와 tvN <작은 아씨들>이 유사한 서사 공식을 택한 드라마로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는 시청자들의 확연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20여 년 간 한국의 드라마에서 재벌 후계자의 위상은 대부분 ‘이상적인 연인’에 고정돼 있었다. 이런 추세는 <파리의 연인>(2004)이나 <내 이름은 김삼순>(2005) 같은 트렌디 드라마에서 재벌 2세 혹은 3세 남자 주인공이 ‘백마 탄 왕자’의 전형으로 굳어진 이후, 꽤 오랫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 엔터테

인먼트 업계 트렌드가 정치적 올바름(PC)과 반자본주의의 편으로 기울면서, 한국 내 드라마 속 재벌 후계자의 위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초 정치적 올바름 이념 자체가 과정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좌파 사회주의의 이상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보니, 경제 영역에서 반자본주의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올바름의 조류에 맞춘 반자본주의의 이념의 부각은 아카데미상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2019년 <로마>, 2020년 <조커>와 <기생충>, 2021년 <노매드랜드> 등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자본주의의 폐해에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몸부림이라는 사회주의적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현실적 경제 상황도 드라마의 반자본주의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2010년대 말부터 2020년대 초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간은 한국 사회가 인구나 경제 구조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절대적 부의 팽창 시대를 마감하는 시기로 자리매김했다. 주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 혼인율과 출산율은 급전직하하고, 국가 전체의 생산가능 인구 수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로써 젊은 세대는 이전처럼 평탄하게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어려워졌고, 만성적인 고용 불안정과 소득 감소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가는 계층 이동 기회가 막혀버린 사회에 대한 시청자들의 분노를 재벌들에게 돌리는 작품들의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재벌들에게 복수하면서 그들의 부와 권력을 치밀하게 잠식하고 강탈하는 작품들이 인기를 얻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재벌집 막내아들> 역시 이런 맥락의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JTBC의 새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재벌의 일그러진 초상: 반자본주의의 이념에 맞춘 영성화 서사 요소

이처럼 최근 반자본주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 드라마 속에서 재벌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절대악으로 그려진다.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부와 권력을 위한 무한한 탐욕에 잠식돼 주변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의 최종 흑막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요소도 반영돼 있다. 다수의 재벌 혹은 재벌 후계자들이 자행해온 편법과 부정, 그리고 그들의 삶에 뿌리박힌 특권적식과 그로 인한 추태에 대한 실망감이 작품 속 악독한 재벌의 이미지에 녹아내려 있다.

이렇게 재벌들이 최악의 범죄자들로 그려지는 사회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대중문화 콘텐츠가 제시하는 재벌들과 권력자들의 악에 대한 해법은 대부분 이윤배반적이고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첫째, 재벌의 피해자인 주인공이 개인적 복수를 위해 스스로 재벌 혹은 그 이상의 부와 권력을 소유하는 위치로 올라간다. 둘째, 그렇게 재벌이나 권력자의 위치로 올라간 주인공은 자신이 거꾸러뜨린 기존 재벌들과 다르게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과 자신의 부와 힘을 나눌 줄 아는 자로 성장한다.

이는 비운의 주인공을 위한 복수의 서사를 완성시키는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이 가르치는 분배의 정의 즉 결과의 평등의 정의에 충실한 결말이다. 그런데 이 둘의 결합은 사실 비현실적인 혼종이다.

비운의 주인공이 자기 복수를 위해 그토록 치밀하고 독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 한도를 가능하게 했던 트라우마와 자기연민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인데, 이런 인물이 과연 모든 복수를 마쳤다고 그 복수의 달콤한 결실인 부와 권력을 다른 이들과 쉽게 나누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조악하고 비현실적인 해피엔딩은 값싸게 소비되는 장르소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자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어떤 인간이라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자는 그로부터 나오는 쾌락과 힘에 도취되어 심령이 퇴락하기 마련이다. 만약 현실이라면 악독한 재벌에게 복수를 마친 주인공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기존 재벌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다음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의 속성이다. 그리스도께서 만나는 세리들과 부자들마다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부와 권력이 인간을 자기도취에 중독시켜, 도무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다.

칸트 또한 이런 성경의 지혜를 따라 자기애(self-love)가 인간의 실천이성(선의지) 발현을 근본으로부터 가로막는다는 것을 가르쳤다. 인간의 심성은 생각보다 유혹과 자극에 약해서, 부와 권력이 주는 진득한 쾌락이나 자아도취의 탓에 조금만 발을 들이더라도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재물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셨다.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는 명령에서의 강조점은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배’가 아니다. 여기서 진정한 강조점은 그리스도를 좇으라는 것이다.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가 여전히 분배된 부와 재화의 향유에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면, 후자는 아예 부와 재화의 향유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는 참된 신앙의 길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부와 재물에 먹혀버린 인간 군상을 보여줄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부터 시작 \$20 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오다가 주웠어

KIDOK SHOP

단체선물 특가전

쿠폰 70% OFF



www.kidokshop.com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단체선물 기획

1.



퀵센스
6종 프리미엄 칼세트

10세트부터

~~\$369.90~~ \$150

PRICE FOR 10 SETS



단체선물 기획

2.

PLAN 36.5
퍼퓸드 핸드크림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



20세트부터

~~\$300~~ \$130

PRICE FOR 20 SETS



BEST SELLER

리비스타 어깨 밸런스 밴드

등이 퍼지면 인생도 퍼진다

두껍고 둔탁하게 입지 말고 무봉제 기술로 얇고 가볍게!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45~~ \$38



어깨를 중심으로 등과 허리까지

단체선물 주문문의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상담!



스캔하고 상담하기!

전화 상담
213-235-6663

